

'강진들 황금 한우 암소' 미국산 수입 쇠고기와 정면 승부

한약재 '황금' 배합 사료 먹여 명품 육질로 고객 입맛 잡는다

하루 1천여명 발길... 개장 10여일만에 10억 매출

"미국산 값싼 쇠고기가 쓸어져 들어와도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면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급화·브랜드화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가 새로운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는 강진군이 지원하고 강진지역 한우 사육 농가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명품 한우 브랜드로, 지난 14일 직판장을

개장한 이후 12일만에 한우암소 84마리를 팔아 치웠다. 매출액만 10억 원에 이른다.

25일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에 위치한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 먹거리촌'에서 만난 김동근(40) 먹거리촌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와 가격경쟁력에 선 밀리겠지만, 고급화·브랜드화로 승부 한다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 대표는 "강진 한우 중 도축할 수 있는 암소는 8천여두 정도 되는데, 김 대표는 "이미 쇠고기 시장은 개방됐고, 더 이상 정부 탓만 할 수 없는

지금처럼 매일 7마리씩 팔려 나간다면 연간 2천500마리의 소비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미국 쇠고기 개방 소식에 소식이 잠시 주춘이 상태지만, 앞으로 강진 황금 암소 만큼은 품귀 현상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말처럼 이날 먹거리촌에는 식육점 6곳과 식당 2곳에 1천여명의 손님들이 방문했고, 1등급 한우암소 7마리가 품절되는 대성황을 누렸다.

김 대표는 "강진 한우 종 도축할 수



쇠고기 수입 개방의 여파 속에서도 고급화·브랜드화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가 새로운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먹거리촌내 6개소의 식육점에 한우고기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줄지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 스스로가 살길을 모색한 뒤 부족한 부분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하는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대표를 포함해 강진군내 100농가(한우 2만여두)가 가입한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 사업단'은 지난해 초 쇠고기 수입 개방을 대비해 만들어진

영농조합법인이다.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는 어린 송아지 때부터 황금색을 쓰지 않고 한약재 황금(黃芩)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기른 1등급 암소고기로, 시중보다 20~50%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먹거리촌 암점 업소들은 '강진들 황금한우 사업단'과 계약에 따

라 인증받은 암소만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김병웅 강진군 축산팀 담당은 "한우농가와 군이 힘을 모아 고품질 한우 암소를 판매한다면 저자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나명주기자 mnja@kwangju.co.kr



봉축탑 점등
광주시 동구 금남로 분수대 앞에서 스님 및 신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점등식 직후 탑돌이를 하고 있다.

광주불교사연회는 다음달 12일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25일 오후 7시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근로자들에 돈 받고 기부금 영수증

13억 조세 포탈한 사찰 주지 영장

여수경찰은 25일 근로자를 상대로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여수 W사찰 주지 김모(60)씨에 대해 조세포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찰로 찾아온 여수 산단 근로자들에게 1장

당 5만~10만원을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2천42장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72억9천여 만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뒤 13억원 가량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제왕절개 수술 받던 중

신생아 얼굴 칼에 다쳐

목포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가 수술 용 칼에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A(여·27)씨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께 목포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신생아(여)의 얼굴이 수술용 칼에 베여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통합 수술을 받았다.

이 신생아는 오른쪽 볼에 길이 2cm, 깊이 5mm 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자연분만이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서 수술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사고 직후 신생아의 얼굴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충분한 치료와 피해 보상을 했다. 향후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주말 봄비

주말인 26일 광주·전남지역은 비가 온 후 개겠다, 허울인 27일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등 나들이하게 좋을 날씨가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광주·전남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으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비가 온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로 예상됐다.

휴일인 27일에는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광주기상청)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광주기상청)